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67호 현대불교

29

2011년 12월 21일(음 11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사람이 좀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마음을 내야 합니다

청주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명 깊습니다. 먼저 누구나가 다 왜 각자 자기 뿌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청주에 오니까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지만 생무지인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죠. 나무들을 보면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뿌리는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죠? 저 나무들의 뿌리가 말입니다. 꽃나무든 버드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각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잎새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 형상을 믿고 말입니다. '형상을 믿고'라는 말은 이들을 믿고 형상을 믿고 상대를 믿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네들한테 웃을 해 주고 밥을 해 주고 절을 지어 줬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복이라고 그러느냐? 내 나무는 내 뿌리라고 정맥 동맥이 상통하듯 그렇게 돌아갑니다. 뿌리와 나무가 위에서는 공기, 태양,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에서는 땅의 지기와 철분과 황분과 수분 모두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겁니다.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다른 한쪽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물질세계의 한쪽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세계 50%가 부족하죠. 즉 말하자면 사람이 정맥이 있는데 정맥이 없거나 정맥이 있는데 동맥이 없거나 이런다면 아예 사람 구실을 못 하죠. 그렇듯이 내가 내 뿌리를 믿어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뿌리를 믿지 않고 내 나무가 울창한 탄 나무를 보고 '아이구, 저 나무! 저 나무가 저렇게 큰데 나에게 에너지를 좀 주었으면... 나를 잘되게 했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 나무에서 이 나무로, 이 나무 뿌리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 나무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탄 나무 뿌리가 이쪽 나무를 도와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고 싶어서 조금 줄지언정, 즉 복은 조금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자제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한 철 나는 건데 그 한 철 동안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복으로 하는 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주변 동네에서 쌀이나 몇 뭇방 얻어먹을 뿐이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만, 내 주인공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식구를 다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우리 가족 전체

가 다 불이 켜져서 밝게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생명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생명체들이, 의식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한 부분만 파위가 일어나도 지금 그 집합소는 무너져요. 이게 집합소거든요, 나의 집합소!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는 선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과거로부터 생긴 건데 그 업식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뇌다. 의식들이 모두 마구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지요. 그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빠도 나

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죠. 알고 보면 그렇게 묘한 법입니다.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안식을 했습니다. '전자에 점안식을 했는데 왜 점안식을 또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속눈이 있고 겉눈이 있습니다. 속귀가 있고 겉귀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살던 나의 자성 부(父), 즉 지금 나를 끌고 다니는 부가 있습니다. 그 자성 부와 현실에 사는 자(子)가 둘이 아니게 눈이 밝아져야 속눈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세계 50%를 왕장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뿔뿔이 언젠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직여서는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도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전체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면서 공심이예요. 그리고 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없으며 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나에게 병고가 있는 게 아니며 업이 있다고 해도 내게 업이 있는 게 아니다. 불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공동분담으로 쉼 사이 없이 잘나잘나 돌아가기 때문에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이래야 그게 불을 자리가 있는데, 쉼 사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한 찰나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너그럽고 넓고 크게, 좀더 지혜롭게 마음을 갖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오던 습과 착에 매달리고, 애정 사랑 욕심 악의적인 애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데 안고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그만 막히는 거죠.

더군다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복으로만 이끌어 가고 따라가니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많지만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구렁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 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절대로 구렁이에 빠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잘 생각 하셔서 다른 지인보다도 더 으름나시도록 청주에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만이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얘길 했습니다. 부처님 점안식을 함으로써 그 속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항상 통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통해서 겁니다. 그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서 자기 생각은 못하십니까

29면에서 계속

런데 여러분이 통하는 줄 모르고 받아들이 수가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일체제불과 우리 스님네들의 마음이 첨보 되고 종합해서 한마음으로 눈, 귀, 발, 손 없는 손, 뚝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를,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겁니다. 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아주 이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휴, 저건 별로야. 보기 싫어.' 하면 그것은 빨리 시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 밝고 귀 뜨게 해서 발 없는 발 손 없는 손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게끔 스님네들이 환희심을 가지고서 이끌어 주는 그 마음이 저 부처님한테 다 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 부처님을 돌이 아니게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뿌리, 주인공에다 놓고 삼배를 올리든지 일 배를 올리면 정말 좋을 겁니다. 급하면 일 배를 올리든 삼 배가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삼배를 그냥 하고, 칠배나 팔배나 열배나 일배나 다 똑같습니다. 급하면 일배를, 급하지 않으면 칠배를 해도 되고 삼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못박아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래요. 먹고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에는 이것을 해 먹기도 하고 저 때에는 저걸 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수도 먹고 어떤 때는 밥도 먹고 어떤 때는 잡곡도 먹고, 고정되게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마음도 역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절안식 얘기 하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간편하죠. 저 부처님 한마음을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으로 통하게끔 하나로 놓고 절을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 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친근히 하신다면 아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여려고 행을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묘하고 광대 무변한 법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정말 한나절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인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구경하시고 또 본원에서 오셔서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 부처님한테 천체를 맡겨 놓았습니다. 또 여기 스님한테는 이끌어 주는 법을 그대로 전달하게끔 해 놓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겁니다. (등 뒤의 부처님을 가

라키시며)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하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이자마는 하늘이나 땅이나 천지가 돌이 아니에요. 모습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 아닌 가운데 인간이 있더라! 그 인간이 없으면 천지는 만들어 될 합니까? 인간이 없는데 천지가 어찌 있으며 천지가 없는데 인간이 어찌 있겠습니까? 모두가 돌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저 오기만 하면 저 부처님이 여러분의 애교를 불에 태워 줄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사를 지내는 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공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공양한 그릇을 놓고 공양을 올릴 때에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들이 다 한꺼번

만 응감을 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입니까? 음식만 먹으러 다니게.

그러나 이 떡 한 그릇이라는 건 그냥 떡이 아닙니다. 아주 천체가 먹고도 남을 마음의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심으로 공양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놓고서 한다면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에 착 들어와서 볼 때 아래 위도 타졌고 사랑도 타졌고 천체가 내 것 아닌 게 없어요. 혼백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냥 전부, 천상세계가 그냥 전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돌이 아니게 그냥 확 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밖에요. 그런데 상에다가 몇 알갱이 차려 놓은 고깃만 보고서 한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로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이 돼서 현실로 팔자 운명 애고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놓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흥! 거기서 저지른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다 봤을 때에,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다 봤을 때에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재사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말 한 마디지마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스님! 그냥 상 차리지 않고 재사 지내 주세요.' 그리고는 갖다 놓죠. '차리지 않긴 될 차리지 않아! 본래 그냥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하하하! 아, 세상만사가 다 차려져 있고, 종합 그 뭔지?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아, 이라고 나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팔팔 뛰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서에서 순경 불러온다고. 그래서 내 말이 그랬어요. '불러 오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시식을 잘 지내서 좋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소를 하나 얘기를 하나, 염불을 하나 해 주길 하나, 아무 것도 없이 아니, 다 나눠서 먹어 치워 버리고선 이리나 이런 땀방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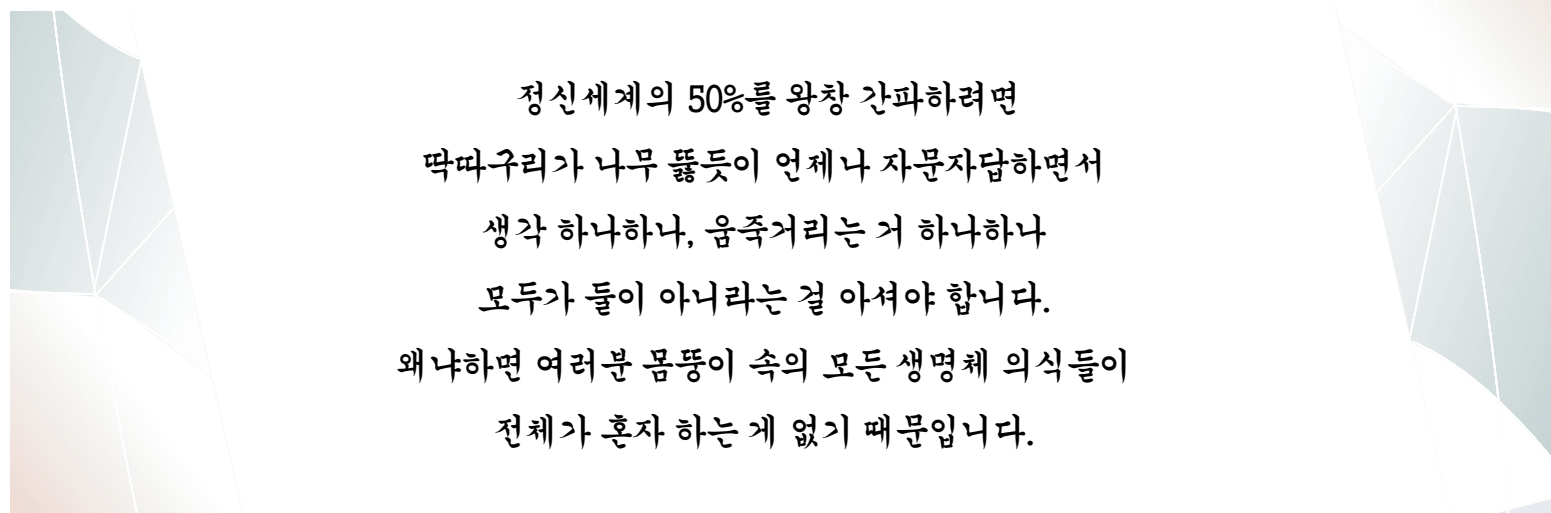
그랬는데 어머니를 복 패듯 하고 그러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데다가 꽃을 꽂아 놔줬어요. 그 꽃 한 송이 꽂아 둔 물을 갖다가 썩 내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 여기가 천당이구나. 여기가 승천하는 곳이구나.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아,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비비더니 그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레 아직까지도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오려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때가 많아요.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많더라구요. 미친 짓을 해 놓고는 나한테 와서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요. 변연히 시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돈을 갖다 넣고는 인제는 집도 집도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 그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한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게 살아.' 또는 '우연히가 없다. 이견 절대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인제 재사 지내는 그 뜻도 대충 아시겠죠? 한 상만 차려 놓으면 한 상 거리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준다면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어요. 그 혼백의 조상들이 어디 아니 가는 데가 없이 갈 수 있고 어떤 자리든 내 자리 아닌데 없고 나 자신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이지 승천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스님네가 재사를 지내는데 웅장하게 그렇게 지내 주느니 저렇게 지내 주느니, 차려 주지 않느니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차려 준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발짝 떼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물 밥 찌개를 먹지, 승천해 있는 사람이 왜 찌개 밥을 먹습니까? 먹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감지하고 바다를 마신 거와 같이, 또 바다를 토함과 같이 해서 여러 사람한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시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 하나로 드십니다. 부처님이 한 그릇을 받아서 그 한 그릇을 통해서 다시 중생들에게 내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내리고 받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다를 한 찰나에 삼켰다가 한 찰나에 토해서 여러 중생들한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어서 정맥 동맥이 내려오고 올라가듯이, 공양을 올리는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천지를 다 먹이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는 겁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사를 지낼 때 찹쌀로다가 딱 한 그릇을 해서 놓고 향, 다기, 꽃을 놓고서 그냥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 영령 혼백들이 들어오면 벌써 혼백을 봅니다.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상에다가 잔뜩 차려 놓곤, 열마를 내놔는데 열마지 물건을 샀다는 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상 차려 놓고는 '이거는 얼마 들어서 사 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렸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소립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 조상 영령들한테 고 한 상 차려 놓은 것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 '어이, 너희들은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지마는 어항에서 사는 고기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살아요. 인간은 그걸 답답하게 보지마는 붕어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어항 속에 있는 붕어를 보면서 자기 생각은 못합니다. 어항 속의 붕어만 보지요. 하하하... 자기가 지금 어항 속에서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재하면서 살아야만 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항 속에서 받을 뽕이 야하겠기에, 세세생생에 그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뵈다가 짐승으로 뵈다가 독사로 뵈다가 개로 뵈다가 돼지로 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그러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의 네가 저지른 거니까 자동적

데 가면 물건이 그냥 뭐, 가질 거 못 가질 거 할 것 없이 다 있고 이 세상천지 우주 세계에 전체 그냥 색색 가지로 늘려져 있는데 차리지 않긴 될 차리지 않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참, 이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알아자기의 그 조상 영혼들을 대대적으로 천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서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할 것 없이 영들이 셋씩 넷씩 들었다고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그때는 미꾸라지 새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마음공부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한 방씩 찢고 마음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팽개쳤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아, 이 맛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들을 잘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땀만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성을 들이려고 물건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얹어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줬죠. 다 나눠 줬으니 팔팔 뛰고 길길이 뿔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요. 요만한 플라스틱 대접인가 뭐 그거에다 담아서 죄 나눠 주고는 '야! 오늘 시식을 참 잘 지냈

마음의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MAUM DIARY 2012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가기 위한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 한 달 동안 생활의 지침이 될 대행 스님의 법어가 실려 있어요!

아쿠아 블루, 오렌지 브라운, 라임 그린 세 가지 컬러!

130x170mm
정가: 12,000원

* '숲속가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출판기금으로 쓰입니다.

YEARLY PLAN
한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MONTHLY PLAN
목표달성을 지원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갑니다.

DAILY PLAN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웁니다.

..... 파스텔톤의 화사한 수채 그림과 손글씨로 쓴 법어 디자인!

..... 뒷표지에는 큼직한 포켓이 달려 있어 메모지 등 수납 공간으로 쓰기 좋아요!

▶ 판매처
현불삼 : 02-2004-8215
템플스테이 서점, 교보, 영풍,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외 일반 서점

▶ 구입시 입금 계좌번호
농협 : 211813-52-006904
국민은행 : 222-2106-08997
예금주 : 이현정

▶ 숲속가게™ supsokgage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한그루의 숲)
blog.daum.net/hanjournal/355
구입 문의 : 010-8675-3108